

40주년 맞춰...광주시 5·18 영화 만든다

제작 지원 TF 1차 회의

내년 예산 10억원 편성

2020년 기념식 개봉 목표

2020년 5·18민주화운동 40주년에 맞춰 광주시 주도로 5·18 영화가 만들어진다. 20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광주시

청에서 '5·18 영화 제작 지원 TF' 1차 회의를 했다.

회의에는 서울의 영화 제작 관계자, 광주 영화·문화계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전문가들로부터 5·18 영화 제작 관련 조언을 받았다. 또 2020년 5월 5·18 40주년 기념식 개봉을 목표로 영화를 준비 중이다.

내년도 예산에 영화 제작 지원비로 시비

10억원을 편성했다.

광주시는 전문가 자문을 받아 영화 규모, 형태, 방식 등을 결정하고 내년 하반기부터 영화 제작에 들어갈 계획이다.

광주시는 '택시운전사', '화려한 휴가' 등 5·18을 소재로 한 영화가 큰 인기를 끌면서 광주와 5·18이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 이번 영화를 통해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광주를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와 2007년 각각 개봉한 '택시운전사'와 '화려한 휴가'는 광주에서 영화가 촬영됐고 광주시도 제작을 일부 지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아직 구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내용 등은 확정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수차례 TF 회의를 통해 제작자, 전문가 등의 조언을 받고, 제작사를 공모하고 영화를 만들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서구 고독사 예방 TF팀 가동...1934명 대상

광주시 서구는 "21일부터 복지관련 부서와 동 맞춤형복지팀장,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등 외부 협력기관이 참여하는 서구 고독사 예방TF팀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TF팀은 고독사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 고위험 1인가구 발굴·돌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

서구는 지난 9월까지 4만3000여명에 대한 1인가구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질병·알콜중독·경제적 빈곤·주거 취약지 거주 등의 사유 중 2-3가지 복합 대상자 1934명을 고위험 가구로 선별했다.

이 중 1345명은 통장 등을 통한 주기적인 전화와 방문, 반찬배달, 건강음료

배달 사업을 통해 안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나머지 589가구는 내년 2월까지 가정방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개인적 채무나 신용불량 등으로 주민등록 미등록 고위험 가구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연계한 신고체계를 구축하고 주소 이동을 유도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모바일 안심케어서비스도 새롭게 제공한다. 이 서비스는 일정기간 동안 휴대전화 음성통화 발신과 수신기록이 없을 경우 동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안부 확인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 시스템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지역 항공사진 무료로 받아보세요

시, 내달부터 발급서비스

내년 1월부터 누구나 광주지역 항공사진을 인터넷에서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광주시는 20일 "국토지리정보원과 '공간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국토정보 플랫폼(http://map.ngii.go.kr)'을 통해 항공사진 인터넷 무료발급 서비스를 2019년 1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인터넷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업체가 보유한 1990년 이후 촬영된 항공사진 5만 1000여 장을 제공, 국토정보 플랫폼 탑재작업을 해 왔다. 이를 통해 축적된 항공사진의 인터넷 무료서비스 기반을 구축하고 전액 국비로 추진해 4억여 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한편 광주시는 2002년부터 각 부서에 산재한 항공사진 촬영을 토지정보과로 통합하고, 필름 방식의 촬영자료를 정밀 스캐닝해 DB구축하는 등 1990년 이후 촬영한 항공사진 DB작업을 마치고 민원서비스 환경을 마련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민들이 광주시를 직접 방문해 항공사진을 발급받는 불편을 해소하게 됐다"며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약을 통해 해마다 촬영하는 항공사진 자료도 지속적으로 서비스하고, 축적된 항공사진 자료를 연도순으로 비교할 수 있는 시계열(時系列)서비스를 추진해 시민들이 도시 변화상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



동절기 안전관리 대책 보고회 광주시 정중제 행정부시장은 20일 오전 시청 17층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열린 '사회기반시설 동절기 안전관리대책 보고회'에 참석해 분야별 관리현황과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광주 주요관광지 34곳 무료 와이파이 설치 완료

광주지역 주요 관광지에 공공와이파이 설치가 완료돼 누구나 무료 기기 와이파이를 맘껏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20일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통신사(KT)는 지난 9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6억5400만원을 투자해 양립동근대역사문화마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 중심사원호사 등 관광지 34곳에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구축했

다"고 밝혔다.

이로써 시내 주요 관광지 와이파이 구역에서는 누구나 'KOREA Free SSID'에 접속해 별도 인증절차 없이 무료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 관광객 편의가 한층 개선되고 광주 관광 활성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지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비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역에는 관광지, 전통시장 등을 포함해 총 577곳에서 무료 공공와이파이 서비스를 하고 있다. 내년까지 시내 버스 전체(총 1000여 대)에도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설치,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북구, 민방위·정보화 업무 등 최우수상

광주시 북구가 한해를 결산하는 연말 각종 업무평가에서 결실을 맺었다.

북구는 "광주시가 5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민방위업무', '정보화 업무추진', '공중위생업무' 평가에서 각각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민방위업무 평가'는 ▲민방위대 편성·운영 및 교육·훈련 ▲민방위시설·장비 확

충 및 유지관리 등을 평가했으며, 북구는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점수를 받아 11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현장 중심의 맞춤형 재난대비훈련 실시로 초동 대처능력을 높이는 한편생활민방위 순회교육 및 체험버스 운영, 민방위 교육동지서 부재시 안내스티커 제작 등 수요자 편의 중심의 시책을 펼친 점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북구는 ▲정보화 추진 역량 수준 ▲개인정보보호 관리 수준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4개 분야 9개 지표에 대해 이뤄진 '정보화 업무추진'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문인 북구청장은 "연말 잇따른 수상은 주민들이 일상 속 작은 부분까지 체감할 수 있는 구정을 펼치기 위해 1000여 공직자들이 다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서구 내달 4일까지 공직기강 특별감찰

광주시 서구가 연말연시를 맞아 공직기강을 바로 잡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하고 특별 감찰에 나섰다.

20일 서구에 따르면 이번 특별감찰은 감사담당관 직원 37명 11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이 내달 1월 4일까지 본청과 동주민센터를 대상으로 불시에 현장감찰·비노출활동을 통해 공직기강 해이 여부 살핀다.

주요 감찰사항은 갑질, 부적절 연행, 업무의 부적절 사항, 복무·보안·안전관리 준수 여부,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대응태세 유지 상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비리,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

이용 제공 행위 등이다.

공직기강 문란행위나 부패연루자 적발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관리자에게 연대문책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며, 금품거절 등 수렴사제는 전 부서에 전파해 공직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청렴주의보 발령은 명절, 휴가철 등 공직기강이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에 발생하는 부패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사전주의보"며 "향후 부서별 자체교육을 통해 청렴의지를 다지고 연말연시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공동 육아·돌봄 공유하고 여성역량 강화

광주시 을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 성과 발표회

광주시는 20일 "도시재생공동체센터에서 2018년도 여성가족친화마을사업성과 발표회를 지난 19일 열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친화마을 조성 사업은 마을 사랑방을 여성의 거점공간으로 활용해 공동육아, 돌봄을 공유하고 여성역량을 강화해 여성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돼 올해로 7년째를 맞았다.

광주시는 올해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돌봄, 여성역량강화 등 2개 분야로 지정해 15개 마을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열린 성과발표회에서는 그동안의 과정,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이야기, 소감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동구 '두락', '동아엔동아스', 서구 '향꾸네'는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미성교육, 공예수업이 마을 일자리로 창출됐다.

서구 '화삼골피앗', 남구 '사적동주민자치위원회', '순수작은도서관', '송화마

을3단지임차인대표회의', 북구 '푸른마을3단지부녀회', '강아지통 도서관', '임동주공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광산구 '마을아이', '비야까망이', '신가마을교육공동체'는 마을 어르신과 주민들이 힘을 모아 공동 공간을 조성해 맞벌이 엄마, 아빠 대신 공동 육아와 공동 밥상을 추진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 밖에도 여성가족친화마을 참여자 대부분은 사업 시행으로 마을의 성평등 의식이 높아지고 자생적 소모임 구성이 활발해지는 등 마을에서 여성 리더가 발굴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2019년에는 여성가족친화마을 광역형 모델을 특화해 여성역량강화 프로그램이 마을 일자리로 연계되고 공동 돌봄, 공동 밥상이 확산돼 생활밀착형 여성정책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신창동 2층 근린상가, 급매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신창동, 1174번지 (진흥고, 전남공업고 옆 삼거리 코너 건물)
- 대지지분 52평, 건물 170평(실100평)
- 가도빌딩 4층중 2층 201호, 근린생활용도
- 2010년 준공, 주차편리, 전망 좋음
- 주위에 고등학교/대학교 역사문화공원 단독주택 아파트 상업용건물등 혼재, 위치 좋음
- 감정/시세-10억
- 급매 - 상담후
- 문의. 010-3605-5000